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 이끈다

작년 116곳 100만명 육박 110억 소득 도, 올해 65곳에 사무장 인력 지원키로

전남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들이 연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민들이 찾아 110억원이 넘는 소득을 안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예상외로 선진하자 전남도가 대표적인 휴양마을에 도시민들을 지도할 인력 지원에 나섰다.

도는 25일 “올해 총 65개소의 휴양마을에 도시민들을 지도할 사무장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무장은 마을 홍보와 마을 회계·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은 자연관

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와 마을 공동시설에서의 숙박, 음식 제공이 가능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내 지정된 116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선 지난해 92만 9000명이 방문해 112억여원의 농가 소득이 발생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방문객은 12만2000명, 소득은 1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마을 평균 8000명의 방문객과 97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 세지면 화암마을의 경우 마을내 향토음식 체험관을 운영해 4만 1000명이 방문했으며, 마을에서 직접 사육한 한우를 체험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해 연간 1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담양 창평면 삼지내마을은 문화재로 등록된 옛 돌담길과 20여 동의 전통한옥 등의 체험활동을 위해 17만 2000명의 도시민이 찾았다.

도는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사무장과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마을마다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하고 체험객 안전·위생관리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체험관광은 새로운 농·농소득 창출원이자 도농교류의 핵심”이라며 “체험휴양마을을 6차 산업과 연계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자 노트

‘염전노예’와 천일염 불매운동

최근 신안군에서 불거진 염전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왔다.

이후 비난 여론과 함께 신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불매 운동 등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지역 생산자들의 고통과 세계 명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천일염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현재 855여가 2660ha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신안 천일염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여가들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바닥 설치 등 염전시설을 개선하고 청정해수를 사용하는 등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신안 천일염은 칼슘·칼륨·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함유량이 프랑스 ‘계랑드 소금’보다 월등하게 높아 함양과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미국 수출길이 열리며 세계적 명품 소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이상선
신안주재기자

하지만 이번 사건 여파에 따라 신안 천일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면 영세한 생산자들의 생계는 물론 해외 수출길마저 차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농약 성분 등 건강에 유해한 불량 수입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우리의 먹거리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염전 생산현장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품목인 천일염의 활로 모색과 생산자들의 고통 역시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숙제이다.

sslee@kwangju.co.kr

‘소치의 인연’

小痴선생 고향 진도군민
김연아에 줄 ‘국민금메달’
디자인·문구 인터넷 공모

진도군민이 김연아에게 수여할 ‘국민 금메달’ 인터넷 공모를 한다.

‘(가칭)국민금메달추진운동 추진본부’는 디자인 공모를 거쳐 동계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크기(두께 10mm, 지름 100mm, 무게 531g)로 제작,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금메달에 새겨질 문구다. 다음달 3일까지 인터넷(zkffos@hanmail.net)으로 받는다. 금메달에 새겨질 문구 등은 휴대전화 문자(사무국장 010-2934-3119)로도 받는다.

진도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小痴) 허련(許鍊) 선생의 고향으로 ‘2014 동계올림픽’이 열린 러시아 소치(Sochi)와 발음이 똑같다는 점이 인연이 됐다.

또 군은 김연아 고향인 경기도 부천시와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하고 동계 훈련 등 왕성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메달추진운동 추진본부는 그린진도21 협의회, 진도 청년회의소,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영광 한빛원전 현장교육

영광군 간부공무원들이 최근 한빛원자력발전소(영광원전) 홍보관을 찾아 원전 주요기기 모형을 살펴보고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영광군은 원자력 발전의 기본원리 이해와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원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신안 지도읍 선도 350년만에 물적정 ‘끝’

군, 37억 들여 상수관로 설치...169세대 식수 안정적 공급

신안군 지도읍 선도 주민들이 350여 년만에 식수난에서 벗어났다.

신안군은 지난 24일 지도읍 선도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준공식 및 통수식을 가졌다. 무안군 운남면 옥지와 지도읍 사이에 위치한 선도는 사람이 거주한 지 350여 년이 됐다. 주민들은 약간의

가뭄에도 심각한 식수난을 겪어야 하는 까닭에 불부족을 속명으로 여기며 지금껏 고통과 불편함을 참아 왔다.

군은 총사업비 37억원(국비 26억원·지방비 11억원)을 투입해 지도읍 태천마을에서 선도까지 1.28km의 해저 관로와 선도 상수관로 14km를

시설, 옥지의 광역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선도 주민 169세대 332명은 가뭄에도 지속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안군은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환경부 도서 식수원 개

발사업으로 읍·면 단위에 상수원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원지를 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 10개 지구와 3개 읍·면(지도·압해·증도)은 장흥·담진·담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신안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0%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www.kwangju.co.kr

“함께 사니 좋아요”

전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79곳 호평
정부 국정과제 선정...전국으로 확대될 듯

전남도는 25일 “지난 2004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의 개수·보수를 통해 공동생활 기능을 마련, 방·방비와 난방비를 격정하거나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한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9개 시설이 마련돼 현재 1800여 명

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는 화순군 북면 방리 소재 폐교를 공동생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마산촌 송방분교에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주방, 화장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외로움과 불안감 감소 등의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위생, 안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2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6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1세대

- 10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2세대

- 13,19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주거 겸 사무실,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13층) 1억2000만원(19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 ▶ 경매 낙찰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